

# 강진군, '공보의 전역'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 보건기관 11명 중 6명 복무 만료 신규 배치 전 인근 보건지소 파견 3주간 요일 지정해 주 1회 진료

강진군이 보건기관 공보의 6명을 관내 전체에 파견, 복무만료 기간 종료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해 나갔다.

28일 강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보건기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가 24일 복무만료됐다. 이에 4월17일 신규 공보의 배치 전까지 3주간의 의료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불

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보건지소에서 공보의를 파견·운영할 예정이다.

3월 복무 만료 의과 인원은 관내 보건기관 전체 의과 인원(11명)의 절반 이상인 6명이다.

복무 만료 이후 보건기관 11개소 중 5개소가 공석상태가 된다. 이는 복무만료자 대비 신규 임용 의과 공보의가 턱없이 부족한 결과로 전국 각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전국 신규 총원 인원이 올해 276명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인력 총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진군보건소에서는 의과 공석인 5개 지소에 27일부터 4월14일까지 3주 동안 주 1회 파견 운영하며 진료일은 알기 쉽게 요일을 고정해 운영한다.

신전 보건지소는 매주 월요일, 군동 보건지소 매주 화요일, 대구 보건지소 매주 수요일, 병영 보건지소 매주 목요일에 파견 운영한다. 마량 보건지소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간 순회진료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해 매주 2회 월요일·화요일 운영할 방침이다.

파견 운영이 예정된 지소에서는 방문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사

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3월 초 면사무소에 파견 운영에 대한 주민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강진군 서현미 보건소장은 "의과를 전공하는 여성 비율의 증가,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병 입대 선호 등으로 매년 의과 공보의 배출이 감소되면서 전국적으로 농어촌 의료공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4월 신규 공보의 배치 전까지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 영암도기 30% 특별할인 판매 영암도기박물관

영암도기박물관은 왕인문화축제가 열리는 오는 30일부터 4월2일까지 영암도기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암도기는 12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고화도 시유도기인 구림도기(국가사적 338호)의 역사성을 계승해 영암의 질 좋은 황토를 주원료로 제작하는 도기다. 유약 또한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웰빙도기'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다기 및 반상기세트, 금채 머그컵 등의 생활도기와 도예장인에 의해 수작업으로 제작된 구림도기 광구편 병과 달항아리 등을 관람객에게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영암=이병영 기자

## 무안군, 청년 소상공인 '마켓 올레' 인기몰이

### 오룡공원에서 첫 개최...2만명 방문 음식·의류·액세서리·공예품 판매

무안군 청소년 소상공인 '마켓 올레'에 2만명의 주민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마켓 올레는 오룡신도시 대표공원인 오룡공원을 개최장소로 해 지역 먹거리, 음식, 의류, 액세서리, 미용, 생활, 반려동물용품, 공예, 뜨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 판매자 100여 팀이 참가해서 진행됐다.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행사도 마련해 비눗방울 쇼, 피에로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과 양파껍질로 염색, 소묘, 해양쓰레기 유리로 만든 공예 등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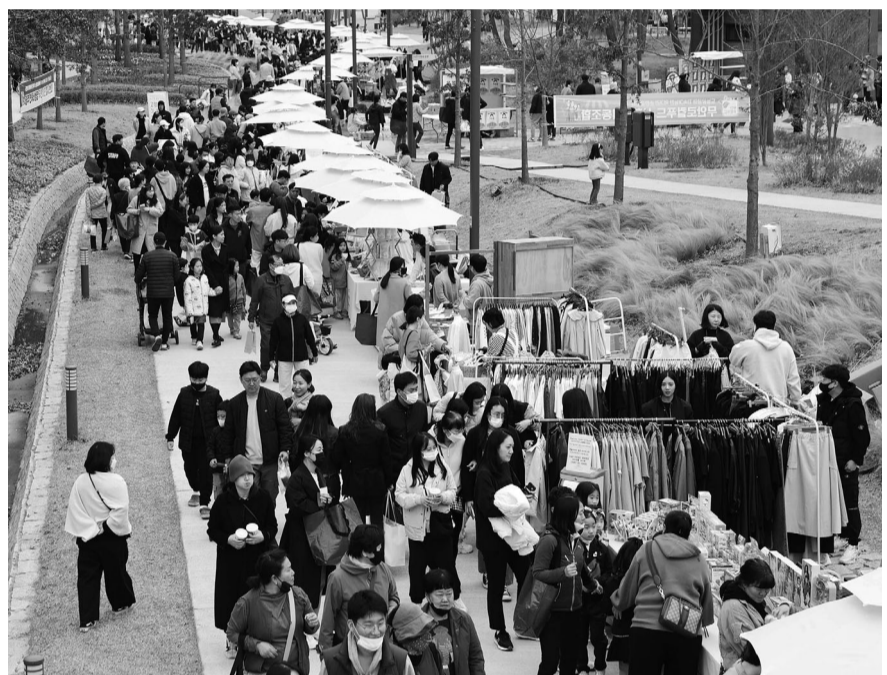
무안군은 이번 행사가 첫 회인 만큼 무안군 소상공인과 특색있는 브랜드로 상

점을 구성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유명 판매자를 모집했다.

판매자에게 판매 부스를 청결하고 깔끔하게 배치하도록 하고 평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품질 좋은 제품들로 구성했다.

무안군 농정과는 지역 먹거리 존에서 향토 농산물을 판매하며 황토랑 쌀과 농산물 소비 촉진 홍보활동을 했으며 무안군청년플랫폼은 카카오톡 채널 가입, 청년정책 퀴즈, 돌림판 상품 뽑기 행사 등을 진행했다.

무안군소상공인연합회와 주식회사 단물은 이번 판매 수익금으로 무안황토랑 쌀 40포대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다음 달 제2회 청년 소상공인 '마켓 올레'는 소풍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소년 소상공인 '마켓 올레'에 2만명의 주민이 방문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조수정 미래성장과장은 "청년 판매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마켓 올레'에서 만나 소통하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지

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4월 29일 마켓 올레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 진도군, 개인정보보호 교육 피해 사례 등 실무 위주

진도군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난 27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개인정보 유출·노출 사고, 해킹 등 보안사고 예방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권현준 전문 강사를 초청, '지키면 프라이빗! 놔두면 프라이빗!'의 주제로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와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절차 등 교육 참석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무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진도군에서 수집·처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업무 수행 중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백재현 기자

## "정부, 신안군 특성 고려한 교육정책 내놔야"



로컬25시 | 홍일갑 신안 주재기자 hong.ilgab@jnilbo.com

2023년 신학기가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신안군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중 아직 기간제 교사 채용이 안된 학교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조금씩 감축해 오던 교원수를 지난해 대폭 줄이면서 생긴 일이다. 감축된 인원은 기간제 교사 공모를 통해 모집하지만 도시지역 학교와는 달리 농·어촌지역 학교들은 기간제 교사 채용에 애를 먹는다.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경우 인력충원이 힘들뿐더러 신청자가 없어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합격을 하고도 임용 포기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

현재 신안군 중학교 정규교사의 경우 125명중 11명이 감축돼 114명이 근무중이며, 나머지는 기간제교사를 채용·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수, 학생수에 맞춰 인원을 감축했다고 하지만, 비교적 채용이 용이한 도시권 학교와 섬에서 섬으로 수업을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도시 지역을 동등한 잣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며 교원 증원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도시 지역 진흥법에 의거 다른지역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다른 지역과 같은 잣대로 감축하다 보니 더 힘들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섬으로 이뤄진 도서산간 지역으로 도시권 학생들보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교육환경이나 청소년기에 체험해야 할 문화·예술·스포츠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여기에 정규교과 선생님마저 부족하다 보니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 신안군 정규직 직원의 경우 2020년부터 3년간 총 61명이 전출·의원면직됐다.

신안군의 한 간부는 "떠난 정규직 직원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기간제 직원 채용에 노력하고 있으나 합격후 면접 미응시, 정원미달 등으로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안군은 육지의 다른 군과 별도로 섬으로 이루어진 특수성을 생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획일적인 교원 감축정책을 지양하고 신안군 특성에 적합한 환경·교육 여건 마련에 나서야 한다.

## 정주여건 개선 사업 신안 2곳 선정

### 흑산면 사리·신의면 기동마을 40억원 들여 생활여건 개선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균형위·농림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흑산면 사리와 신의면 기동마을 2개소가 선정돼 총 4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흑산면 사리와 신의면 기동마을은 뱃길로만 연결되는 열악한 교통여건과 강한 해풍으로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과 주거환경 정비가 절실한 지역이다.

마을안길포장, 배수로 정비, 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폐교 리모델링, 담장

정비,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실무협의를 통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마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안군의 새들마을 사업은 가란도의 전통 돌담길, 병풍도의 맨드라미 섬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사업 시행으로 변화된 마을과 함께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수지도, 옥도 등 총 5개소에서 추진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노후되고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해남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접수

### 장려금·농자재 구입비 지원

해남군은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직불금 형태의 장려금 또는 농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유기농 인증은 ha당 과수 180만원, 채소 160만원, 비·특작·기타 작물 120만원을 지원한다. 무농약 인증은 ha당 과수 120만원, 채소 100만원, 비·특작·기타 작물 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신청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전남도 및 군 주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남=전연수 기자

### 무안군, 올바른 하수 배출 캠페인 물티슈·형질 하수도 막힘 주범

무안군(군수 김산)은 변기에 무심코 버린 물티슈 등이 하수처리장 시설 고장의 원인이 되고 하수 관로가 막히는 문제가 있어 물티슈 등을 버리지 않기 홍보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변기에 버린 물티슈, 스타킹, 형질, 생리대 등이 하수관로를 막히게 하고 하수처리시설 주요 고장의 원인이 된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물티슈 등의 이물질을 변기에 버리지 말아 달라라는 현수막을 무안군 내 곳곳에 내붙이고 전단을 만들어 홍보해 군민들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물티슈는 대부분이 합성섬유와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물에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오수와 같이 떠내려가다 공공하수처리장의 탈수기와 펌프장의 펌프 날개에 걸려 고장이 나게 한다.

하수관로를 막히게 해 맨홀로 오수가 역류하고 악취가 나게 하며 최악의 경우 가정의 화장실로 오물이 역류할 위험도 있다.

군은 물티슈 등 이물질로 인한 하수처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지속해 홍보할 예정이다. 무안=김행연 기자